

연금 시장 리뷰

경제현안

- 동향 :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이슈 : 중국 경기 부진 속 기대 요인

퇴직연금

- 동향 :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 이슈 : 중국 고령화 현황 및 파급 영향
- 퇴직연금통계 : 2012년 5월말

세심록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한국은행 2012년 하반기 경제 전망

- 한국은행의 2012년 하반기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12년 GDP 성장률은 지난 4월(3.5%)전망보다 낮은 3.0%를 보일 것으로 전망(2013년 3.8%)
- 세계경제: 2012년 중 세계경제는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신흥시장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위축
- 민간소비는 실질구매력 증대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겠으나 가계부채 누증, 주택시장 부진 등으로 증가폭은 지난 전망에 비해 축소
- 설비투자는 자동차, 통신 등 비IT부문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건설투자는 비주거용부문 주도로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 수출은 세계교역 신장률이 하반기 중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반기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확대될 전망

○ 금융 동향: 미국 부동산 지표 및 2분기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금융시장 소폭 상승

- 미국의 부동산 지표와 2분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힘입어 외국인 주식 순매수 등으로 금융시장은 소폭 상승세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88%로 전주말 2.95% 대비 0.07%p 하락: 은행권의 국채 선물 순매수 및 CD 금리 등 단기물 금리 하락 등으로 하락
- 원/달러 환율은 전주말 1,150.3원 대비 9.1원 하락하여 1,141.2원을 기록
- 코스피 지수는 전주말 1812.9p 대비 10.0p 상승한 1,822.9p를 기록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분	2010	2011					2012			
		연간	1/4	2/4	3/4	4/4	1/4	7월13일	7월20일	
실물 지표	GDP성장률(%)	6.2	3.6	4.2	3.4	3.4	3.4	2.8	-	
	산업생산(%)	16.2	7.0	10.6	7.2	5.3	5.3	4.2	(5월)2.7	-
	소비자물가(%)	2.9	4.0	4.5	4.2	4.8	4.2	3.0	(5월)2.5	(6월)2.2
	실업률(%)	3.7	3.4	4.2	3.4	3.1	3.0	3.8	(5월)3.1	-
	경상수지(억달러)	282.1	276.5	26.1	54.9	69.0	126.7	26.3	(5월)36.1	-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3.72	3.62	3.80	3.68	3.60	3.41	3.47	1812.9	1822.9
	원/달러(원)	1,156.0	1,107.9	1,119.8	1,083.2	1,085.1	1,143.9	1,140.5	2.95	2.88
	코스피지수(P)	2,051.0	1,825.7	2,106.7	2,100.7	1,769.6	1,825.7	1,972.6	1,150.3	1141.2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2) 실물지표 중 2012년 1/4분기 GDP성장률은 전망치며, 6월22일은 5월, 7월 6일자는 6월 수치임.

□ 경제 이슈: 중국 경기 부진 속 기대 요인

■ 중국 경기 하락세 지속

상반기 중국경제는 내·외수 동반 부진으로 경기가 크게 둔화되었다. 수출 증가율은 2/4분기 10%를 상회하고 있으나, 상반기 전체 8% 증가에 그쳤다. 소비와 투자도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2/4분기 경제성장률은 7.6%를 기록, '09년 1/4분기 이후 약 40개월 만에 7%대로 하락하였다.

■ 경기 회복 여력 평가

하반기 이후 중국경제의 급속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경기급락(경착륙)은 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소비 개선 여력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소비의지, 부동산구매의지, 자동차구매의지 등 도시가계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고, 구인배율 상승, 임금상승, 물가하락 등으로 민간소비 여력도 확대되고 있다. **둘째, 투자 회복 가능성도 엿보인다.** 기업수익 악화에도 불구하고 고정자산투자는 여전히 20%대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의 수출수주, 기업수익성 등 체감경기 개선, 지방發 부동산시장 회복 가능성 존재, 제조업 투자 증가율 상승 등 투자 회복 가능성이 상존한다. **셋째, 수출 경기가 소폭이나마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수출 증가율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도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다. 향후 중국의 주요 수출 상대국인 미국과 아시아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중국의 외수환경도 미약하나마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전체 수출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회복세는 미미할 전망이다. **넷째, 경기선행지표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다.** 제조업 업황을 나타내는 PMI 지수와 향후 경기 방향을 나타내는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세가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업 심리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지수(BCI, Business Climate Index)도 둔화세가 약화되고 있다. **다섯째, 경기급락 방지를 위한 충분한 경기 부양 여력이 있다.** 재정측면에서는 우선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에 비해 GDP 對比 정부부채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재정투입 여력이 크다. 또한 금리도 2008년과 비교해 지급준비율 및 예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금융완화 여력도 충분한 상태이다.

■ 시사점

하반기 이후 중국경제의 급락은 없을 것으로 기대되나, 소비와 투자 촉진 등 중국정부의 내수 중심 성장구조 전환 정책 추진 등으로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구조 전환에 대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소비재 수출품목 확대, 서비스시장 진출 기반 확보, 신 성장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기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의 지역별 성장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의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향후 중·서부 및 동북지역 개발 러시에 대비해 인프라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동부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고소득 지역 시장에 대한 시장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 **셋째, 신흥시장 개척 가속 등을 통해 중국 경기 변동에 대한 민감도를 낮춰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한재진 연구위원(02-2072-6225, hzz72@hri.co.kr)

□ 동향: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요약)

○ 고령층인구는 1,051만1천명(15세이상 인구 4,151만9천명의 25.3%임)으로 전년동월 대비 55만9천명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 고령층 중 취업자 및 실업자를 포함한 경제활동인구는 559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3만1천명 증가, 비경제활동인구는 491만2천명으로 12만7천명 증가

- 고령층의 취업분포를 산업별로 보면「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2.9%)과「농림어업」(21.9%) 비중이 높고, 직업별로 보면「단순노무종사자」(27.5%)와「농림어업숙련종사자」(20.5%) 비중이 높음

○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9년7개월로 전년동월대비 2개월 감소하였으며,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만53세임

-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남자의 경우「사업부진, 조업중단, 직장휴업·폐업」(32.0%), 여자의 경우「건강이 좋지 않아서」(31.6%)가 가장 많았음

○ 지난 1년간 취업경험이 있는 자는 60.2%이며 이들 중 생애 주된 일자리와 매우 관련 있는 일자리를 경험한 경우도 60.2%였음

○ 지난 1년간 구직경험이 있는 자는 15.4%이며 이들의 주요 구직경로는「친구, 친지의 소개 및 부탁」(41.8%)이 가장 많았음

- 미취업자 중 지난 1년간 구직경험이 없는 사람은 450만9천명이었으며,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사유로는「건강상의 이유로」(40.1%)가 가장 많았음

○ 지난 1년간 연금 수령 경험이 있는 고령층은 481만2천명(45.8%)으로 전년동월대비 1.4%p 하락하였음

- 연금수령자의 82.8%는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50만원 미만이고, 150만원 이상인 수령자는 7.2%임

○ 고령층 중 619만8천명(59.0%)은 장래에 일하기를 원했으며, 그 이유로는「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32.1%)가 가장 많았음

-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는「전일제」(68.7%)가 가장 많았고, 임금수준은 「100~150만원 미만」(33.1%)이 가장 많았음

□ 이슈 : 중국 고령화 현황 및 파급 영향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마오쩌둥의 국가 재건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에 힘입어 중국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한 의료 및 복지 여건 개선 등으로 영아사망률도 대폭 감소하여 1970년대 중반에는 베이비붐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인구 정책을 기존의 출산 장려에서 1가구 1자녀의 산아 제한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출생률이 점차 감소하고 총 인구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확대되었다. 2010년 현재 중국은 아직 고령화가 진행 중인 고령화 사회 단계이나, 2030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인구 고령화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 첫째로 인국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비용 상승이다. UN 인구국의 추산에 따르면 2015년경에 중국 15~64세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정점에 달한 후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력 공급 부족을 초래하여 기업의 노동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2~3년간 중국 근로자 임금은 연평균 12%의 속도로 상승하였고, 이미 중국 대도시의 노동비용은 인도, 베트남 등 인접 국가 대도시의 임금 수준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둘째로 저축률 하락 및 소비 감소 등에 따른 장기 성장동력 약화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중국의 노년부양비는 아직은 낮은 수준이나 2040년에는 미국을 추월하여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사회보장 제도가 미비 된 상황에서 이러한 노령인구 부양 부담 증가는 자녀 세대의 저축과 소비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빠른 고령화에 대응하여 중국 정부는 복지모델을 개혁하여 양로보험, 기업연금, 민영보험 등으로 구성된 다층차의 노후보장 모델을 도입하였다. 또한 양로보험 연금 운영도 과거 기업이 전액 부담하던 것에서 정부, 기업, 개인 3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적립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적립방식의 기금제도 도입 이후 전국사회보장기금(SSF)을 설립하여 사회보장 기금의 가치보전 및 증식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농민공 등 사회 사회보험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을 포함하는 한편, 사회보험료 강제 추심 권한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新사회보험법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 노력으로 해마다 양로보험 가입자 및 양로보험 연금수입이 증가하여 연금 재정수지는 줄곧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의 고령화 상황에서 중국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집약적 첨단기술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조정과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며, 이에 향후 중국 정부는 노동력 자질 향상, 1자녀 정책 완화 등 고령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인구고령화로 향후 보건, 위생 산업 등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되므로 이를 중국 시장 진출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I. 중국 고령화 현황

○ 건국 이후 출산장려 정책으로 중국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

- 1949 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마오쩌둥의 국가 재건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에 힘입어 1950 년 5 억 5,000 명이던 총인구는 1975 년에 9 억 3,000 명으로 연평균 2.1% 증가
- 1949 년 5 명당 1 명이던 영아사망률도 의료 및 복지 여건 개선으로 1975 년에는 20 명당 1 명으로 하락하여 1970 년대 중반에 베이비붐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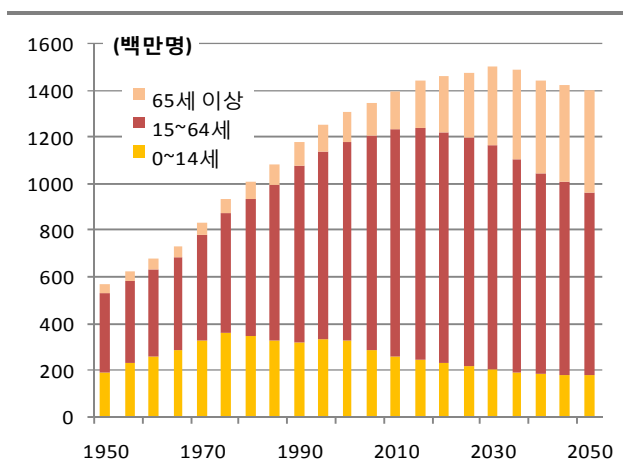
○ 1970 년대 산아제한 정책 실행으로 출생률 감소 및 고령인구 비중 증가

- 1970 년 들어 글로벌 식품 및 에너지 가격 급등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대한 우려로 중국의 인구 정책은 출산 장려에서 산아 제한으로 전환
- 1973 년에 인구 억제를 위한 "1 가구 1 자녀"의 산아제한을 실시하였고, 1979 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출생률이 감소하고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

○ 빠른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30 년경 초고령 사회 진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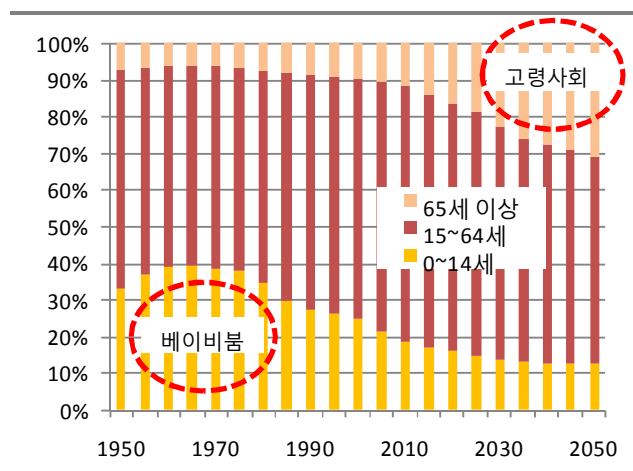
- UN 의 기준에 따르면, 65 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을 고령 사회(Aged Society), 20%를 초과하게 되면 초고령 사회(Post-aged Society)라고 함
- 2010 년 중국 전체 인구에서 65 세 이상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8%로 현재 고령화 사회 단계이나, 2030 년에는 20%를 초과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 예상

[그림1] 중국 총인구 규모 변화



자료 :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그림2] 연령별 인구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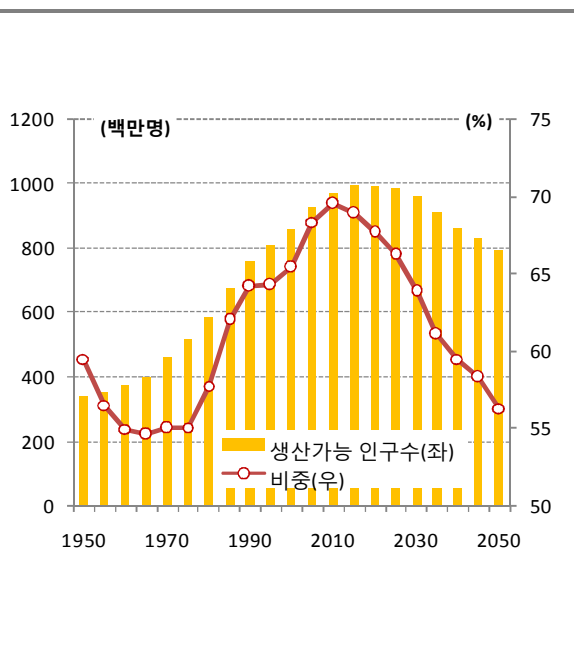
자료 :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II. 파급 영향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노동비용 상승

- 중국의 생산가능인구(15~64 세)는 2015 년에 9.1 억 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 년의 69%에서 2050 년에는 56%까지 축소될 전망
- 2010 년 중국 연 평균임금은 3 만 6,539 위안으로 지난 3~4 년간 연평균 12%의 속도로 상승
- 이미 중국의 상하이 등 대도시의 노동비용은 인도 뉴델리, 베트남 하노이 등 인접 아시아 국가 대도시의 임금 수준을 큰 폭으로 상회

[그림3] 생산가능 인구 규모 및 비중 변화



자료 : CEIC

[표1] 신흥국 주요 도시 임금 비교

	상하이	뉴델리	자카르타	베트남
생산직임금 (\$/월)	322.0	196.2	147.7	104.2
중견기술자 (\$/월)	633.2	462.9	294.4	287.1
법정최저임금 (\$/월)	140.6	86.7	121.5	74.7
사회보험 부담율(%)	44	18	5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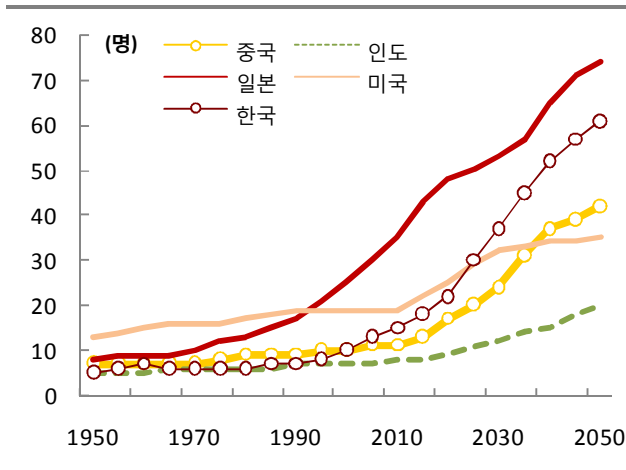
자료 : JETRO(2010 년)

○ 저축률 하락 및 소비 감소 가능성으로 장기 성장동력 약화 우려

- UN 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노년부양비(old-age dependency ratio) 는 현재 11 명 정도로 아직 까지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향후 꾸준히 증가하여 2040 년에는 미국을 추월하여 2050 년에는 42 명으로 상승할 전망
- 그러나 중국 노동자의 퇴직 연령이 남녀 각각 60 세와 50 세인 점을 감안하면 2010 년 실제 중국의 노년부양비는 26 명으로 미국(19 명) 및 한국(15 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2050 년에 64 명으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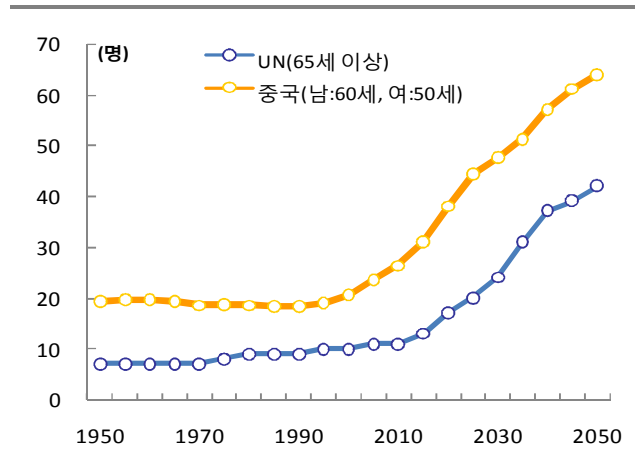
- 노년부양비 증가와 사회보장제도 미비로 인해 자녀들의 부모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자녀 세대의 저축과 소비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

[그림4] 국가별 노년부양비 비교



자료 :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그림5] 중국 실제 노년부양비



자료 :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Ⅲ. 중국 정부의 대응

○ 복지 모델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여 다층차(multi pillar)의 노후보장 모델 도입

- 개혁개방 이전 국유기업은 근로자에 대하여 평생고용, 노후, 의료, 주택, 교육 등 "Iron rice bowl"로 대변되는 전면적인 복지보장을 제공하였으나 이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부담 가중에 따른 국영기업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
- 이에 따라 개혁개방 이후 양로연금의 재정을 기업이 전액 부담하던 것에서 정부-기업-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통합기금과 개인구좌로 이원화된 부분적립방식으로 전환
- Pillar 0 에는 빈곤계층을 위한 최저생활보장제도가 있고, Pillar 1 에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 성격의 양로보험제도가 있고, Pillar 2 에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연금이 있고, Pillar 3~4 에 민영보험 및 가족의 보살핌 등이 있음

[표 2] 중국 노후보장제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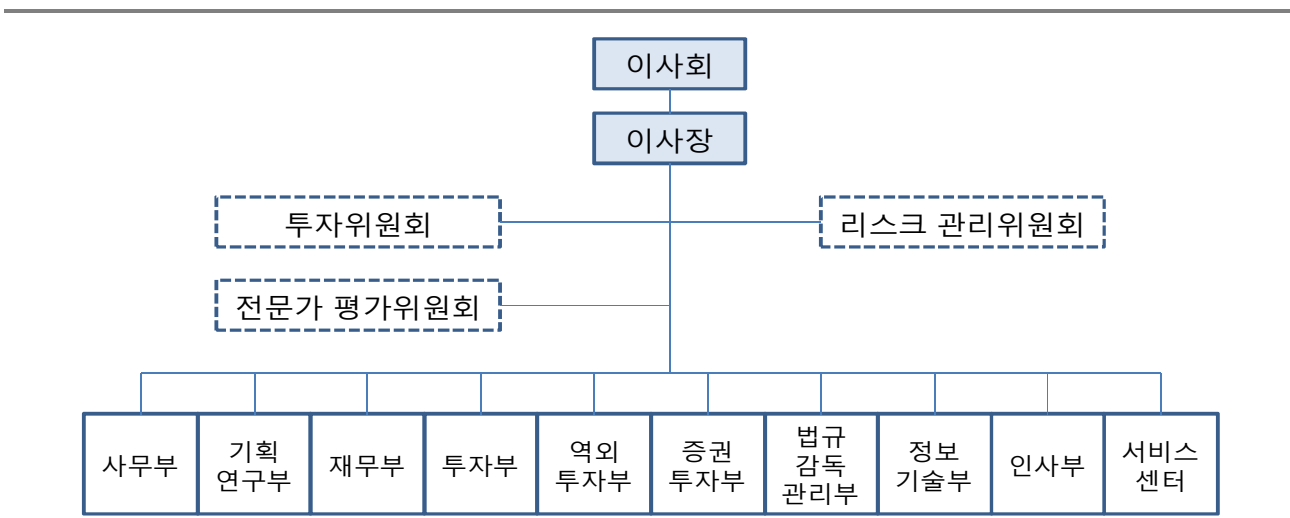
Pillar 0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수입원이 없는, 혹은 노동능력이 있어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입원을 상실한 빈곤계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	---

Pillar 1a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사회보험 중 양로보험(국민연금에 해당). 퇴직자는 해당 지역의 평균 임금과 근무연한 등에 근거하여 산출된 연금 급여를 지급받음. 보험급여를 지불하고 남는 부분은 성(省) 정부의 사회보장 담당 부문에서 관리
Pillar 1b	노동자가 의무적으로 본인의 月 임금에서 8%를 개인 구좌에 적립하며 퇴직 후 수취. 이 또한 성(省) 정부의 사회보장 담당 부문에서 관리
Pillar 2	'기업연금(企業年金)제도로 재정적 여력이 있는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가입. 기업연금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정부로부터 허가 받은 신탁회사 혹은 자산운용사에게 위탁 운용
Pillar 3	양로보험과 기업연금 외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민영보험회사의 연금과 보험상품
Pillar 4	부모에 대한 요양, 자녀에 대한 주택 구입 보조 등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간의 보살핌

○ 2000 년 8 월, 사회보장기금 운영 및 가치 증식을 위해 전국사회보장기금(SSF) 설립

- 적립방식의 기금제도 도입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해마다 점증하는 물가상승률로 인해 사회보장 기금의 가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스템 마련 필요성 증대
- 중국사회보장기금(정식명칭: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SSF: National Council for Social Security Fund)은 국무원 직속 사업 기구로서 경비는 중앙정부 재정예산 및 기금 운용 수익에서 충당
- SSF 는 ▲전국사회보장기금, 양로보험 개인구좌적립기금에 대한 관리 ▲기금의 투자 전략 제정 및 실행 ▲기금 위탁투자 운영기관 선발 및 위탁투자 상황에 대한 관리 감독 ▲기금의 재무관리, 회계 및 대외공개 등의 기능을 담당

[그림6]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의 조직 구성



자료 : SSF

○ 2011년 7월부터 新사회보험법 시행

- 2010년 10월 제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7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이 통과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
- 과거 중국의 사회보험 관련법은 하나의 독립된 법규가 아니라 “노동계약법”, “취업촉진법” 및 “노동쟁의중재법” 등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
- 新사회보험법은 농민공 등 사회보험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을 포함하는 한편, 사회보험료 강제 추심 권한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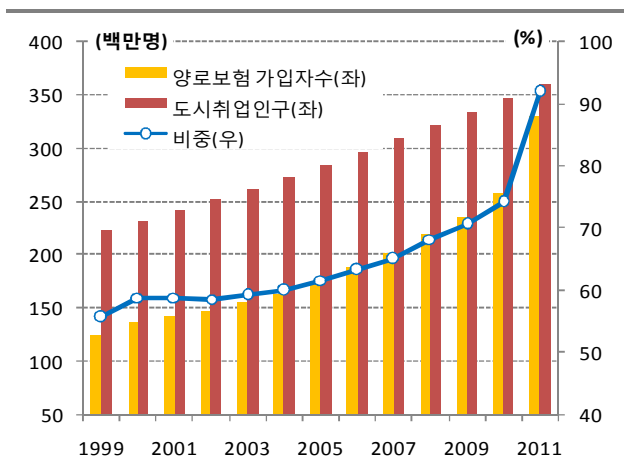
[표 3] 중국 사회보험법의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사회보험 대상 확대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 파트타임 근로자, 도시 이주 농민공 등도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도록 함
근로자 권익 보호 및 기업 책임 강화	기업이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면, 사회보험기관에서 우선 근로자에게 보험 혜택을 부여한 후 다시 해당 기업에게 구상권을 행사
사회보험료 강제 추심 권한 강화	사회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기관이 고용업체의 은행계좌에서 강제로 사회보험료를 추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외국인 사회 보험 가입 유도	중국 내 취업 외국인에 대해서도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

○ 양로연금 가입자 수 확대 및 연금 재정수지 흑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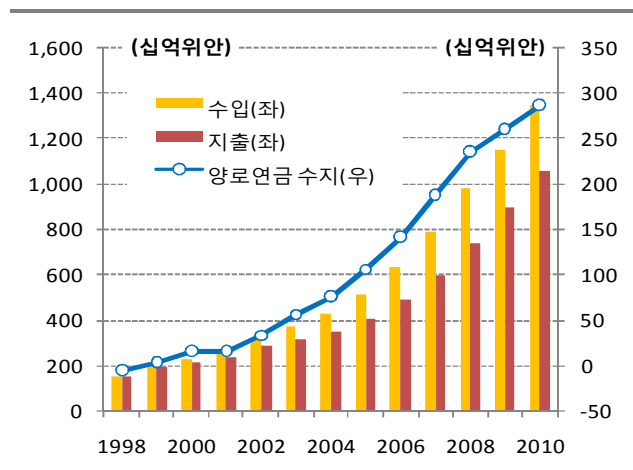
- “사회보장법” 반포 등 정부의 사회보험 확대 노력으로 2011년 말 양로보험 가입자는 3억 2,600만 명으로 전년대비 28%나 증가하여 전체 도시취업인구의 92%에 달하고 있음
- 양로보험 연금수입도 2000년 들어 연평균 20% 가까운 속도로 증가하여 연금 재정수지는 1999년부터 줄곧 흑자를 기록

[그림7] 중국 양로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 :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그림8] 중국 양로보험 기금 수입/지출 현황



자료 :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IV. 향후 전망

○ **중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산업구조 조정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노력 지속 전망**

- 전문가들은 고령화 상황에서 중국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으로부터 자본집약적 첨단기술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조정과 생산성 향상을 필수조건으로 제시
- 향후 중국 정부는 노동력 자질 향상, 농촌부문 유희노동력의 도시 유입, 1 자녀 정책의 완화 등을 통해 고령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

○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대응하여 1 가구 1 자녀 정책이 점진적인 완화 등 예상**

- 2011 년 11 월 중국 허난성이 관리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전국 31 개 성시에서 양친이 모두 독자일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 둘째 아이의 출산을 허용
 - 베이징의 경우 ▲양친이 모두 독자이며, 첫째 아이가 여아인 경우, ▲재혼부부로서 쌍방의 아이가 모두 여아일 경우 등에 한하여 둘째 아이의 출산을 허용하고 있음

○ **중국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보건, 위생 산업 등에 수요 확대가 예상되므로, 중국 시장 진출의 기회로 삼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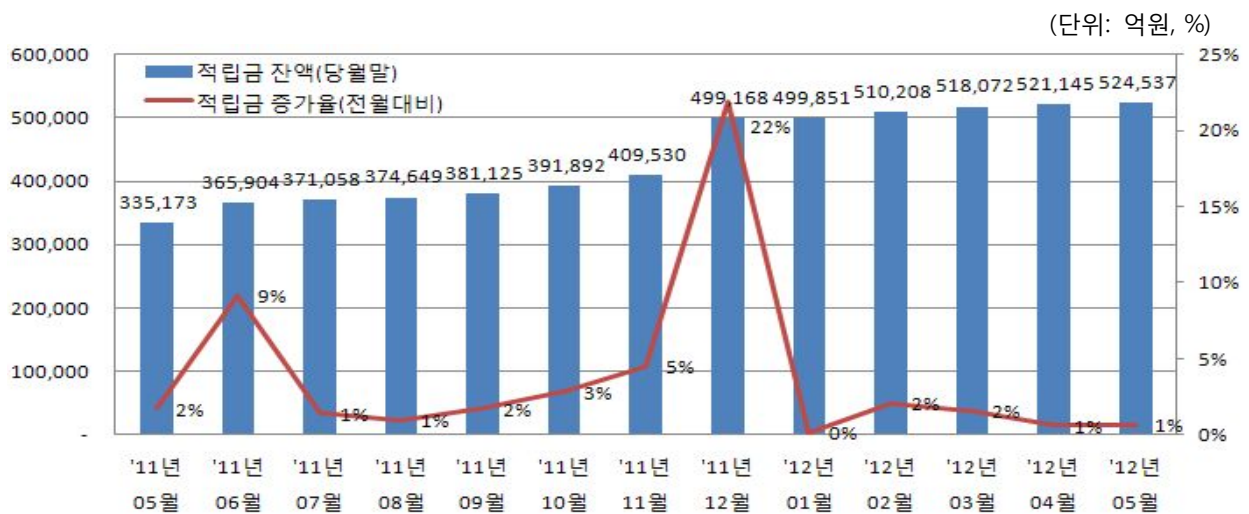
이정진, 경제학박사, KB 경영연구소 연구위원 (02-2073-5744, sunbeelee@kbfng.com)

□ 퇴직연금통계 (2012년 5월말)

○ 적립금 규모

- 2012년 5월 말 현재 적립금액은 52 조 4,537 억원으로 전월말 (52 조 1,145 억원) 대비 0.7% (3,392 억원) 증가
- 퇴직연금 정기납입분 및 퇴직급여 지급액은 분기 및 연말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평월의 증가세는 낮은 편
- 퇴직금 추계액(133.6 조 추정) 대비 퇴직연금 적립률은 39.3%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



자료: 금융감독원

○ 도입사업장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161,616 개소로 전월말(157,268 개소) 대비 2.8% 증가
- 총 사업장(1,507,158개소)대비 퇴직연금 도입률은 10.7%

<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

구분	10인 미만	10인~ 29인	30인~ 99인	100인~ 299인	300인~ 499인	500인 이상	합계
(A)도입 사업장수	95,882	41,969	17,346	4,687	733	999	161,616
(B)전체 사업장수	1,277,326	167,033	50,007	10,309	1,363	1,120	1,507,158
도입비율 (A/B, %)	7.5	25.1	34.7	45.5	53.8	89.2	10.7

자료: 금융감독원

□ 洗心錄

□ 빅데이터 시대의 의사소통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정보를 흔히들 홍수에 비유한다. 소위 빅데이터 (Big Data) 시대의 도래다. 특히나 시시각각 변하는 경영환경을 늘 접하게 되는 CEO들에게는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구분하여 찾아내고 가치를 창출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논어(論語)」의 '계씨(季氏)'편에는 군자삼외(君子三畏), 즉 군자라면 삼외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들은 것이 없을 때는 듣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며, 들었다면 들은 것을 익히지 못함을 두려워하며, 익혔다면 실천하지 못함을 두려워하라는 의미다. 춘추전국시대에는 군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에 관한 언급이 많았다. 당시 절대 권력이었던 군자의 자질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었기 때문이다. 공자(孔子)는 군자(君子)와 일반 소인(小人)의 차이를 이처럼 삼외로 구분했다.

경영조직이론의 석학인 체스터 버나드(Chester. I. Barnard)는 저서인 「경영자의 기능(The Functions of the Executive)」에서 조직은 주인의식과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보에 의해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의해 경쟁 우위가 결정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기업들은 실제로 엄청난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 떠내려가고 있다. 조직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CEO는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하 직원들과 계획을 공유하고 실제 일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의사소통함으로써 조직내 컨센서스를 모아야 한다. 경영자의 소임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흘러오는 엄청난 정보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경청(傾聽)의 자세가 필요하다. 귀를 열어 듣고, 들었다면 익혀야 하며, 익혔다면 실천하는 데 두려움이 없어야 할 것이다.

훌륭한 리더(Good Leader)는 경청을 잘 하는 사람(Good Listener)이다.

- 릭 워렌(Rick Warren)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 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명지대 교수(영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